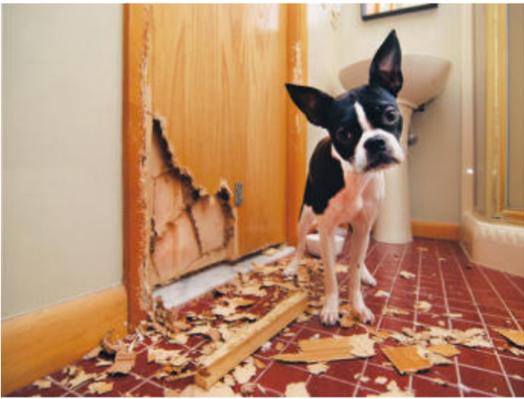


모든 것을 다 씹는 반려견 행동 교정 방법



개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씹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그들이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씹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리고 이유야 어떻든 대부분의 씹는 행동은 쉽게 해결이 가능한 행동 문제이다.

■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씹는 반려견

이런 행동은 생후 3개월 이상의 작은 새끼 강아지들에게 매우 흔하다. 이 연령대의 강아지들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단계로 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이빨이 나오려고 할 때 느껴지는 통증이나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 물건을 씹기도 한다.

하지만 성격은 이미 자신의 환경에 대한 탐험을 다 마친 상태이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씹으려 든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관심 얻기 또는 지루함?

원인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또는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이다.

개는 매우 사교적인 동물이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주인이 언제나 반려견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불만스러운 시간이 쌓이면, 개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씹는 행동을 보인다.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다.

씹는 행동을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반려견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반려견이 엄청난 환영을 하고는 즉시 물건을 씹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두 경우는 해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 강박적으로 씹는 행동 고치기

우선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을 꾸짖는 것은 문제를 키울 뿐,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박적 씹기 행위를 고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적 강화이다. 정적 강화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기억하며, 이제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한다. 하루 중 집을 비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분리 불안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집에 남아있는 개들이 자주 겪는 문제이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물건을 씹는 것이다.

좀 더 심각한 경우 반려견이 자신의 발을 씹을 수도 있다. 자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제대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런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동안 가지고 놀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들을 준다. 외출할 때는 라디오 또는 음악을 틀어두고 나온다. 이것은 반려견이 혼자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조금이나마 안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능하다면 반려동물을 한 마리 더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오랜 시간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매우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 직접적인 교정 방법

불안을 앓고 있는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하지만 만약 주인의 관심을 얻기 위한 씹기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좀 더 직접적인 교정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로 그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허용 가능한 수준을 가르친다. 개들은 본능적으로 물건을 씹는 경향이 있고 허용 가능 범위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새끼 강아지일 때 허용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옳고 그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주인의 책임이다. 그렇게 하면 반려견은 허용되는 수준 이상의 행동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씹는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씹어도 되는 물건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신지 않는 신발이나 입지 않는 옷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 이들은 비슷한 물건은 다 씹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씹는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교정을 해주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혼을 낼 때 효과적이다. 만약 그들의 몸에 손을 대야 한다면, 코를 살짝 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씹는 행동을 고쳐주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필요한 것은 반려동물에게 올바른 행동을 알려주려는 주인의 인내심과 의지이다.

사진=shutterstock



고양이와 친구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

일부 고양이들은 잘 투덜거리고 인간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비록 고양이 주인들은 그들이 매우 다정한 동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고양이와 친구가 되는 최고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고양이에게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 혹은 집에서 반려동물과 사람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하는 방법에 관한 과학적 결론들은 '나의 반려동물' (myanimals.co.kr)이 소개했다.

1. 고양이들이 주도권을 잡게 하자

스위스에서 진행된 두 가지 연구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고양이와 친구가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고양이가 사람에게 다가와서 접촉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고양이가 허락하기 전에 고양이를 쓰다듬는다면, 처음부터 관계를 잘 맺지 못할 것이다. 연구는 고양이가 먼저 처음 접근할 경우 더 오래 머물며 놀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 고양이에게 시간을 주자

고양이는 매우 표현력 있는 몸짓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양이들이 불편하거나 짜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꼬리를 흔들거나 귀를 납작하게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이러한 신호를 존중하고 고양이를 멀리하거나 쓰다듬는 것을 멈춘다면 고양이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다음번 상호작용 시 고양이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3. 고양이들과 함께 놀아주자

고양이들이 인간과의 놀이를 음식보다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게다가, 고양이는 장난감이 있는 경우 인간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장난감의 종류는 각 고양이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 고양이는 사회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포식자이기도 하다. 놀이는 이들의 타고난 본능의 일부분이다. 고양이와 놀면서 작은 장난감에 몰래 접근하여 사냥할 기회를 준다면 고양이와의 관계는 돈독해질 것이다.

4. 성격에 맞는 고양이를 입양하자

입양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몇 가지 통계 조사를 했다. 한 연구는 다 큰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털 색깔이 고양이들의 실제 성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양이의 다양한 성격을 털 색깔의 탓으로 돌린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 다른 조사는 고양이를 입양한 성인들의 삶에 관한 것이었다. 입양 전에 고양이의 성격을 알아챈 사람들은 고양이의 행동과 고양이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 보호소는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 동물과 주인의 성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입양이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고양이에 대해 더 잘 알아보는 것이



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와 친구가 될 때 그 성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5. 고양이를 밖에 두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 행해진 한 연구에 따르면 밖에 나가지 않는 실내 고양이들은 밤이나 낮 동안 돌아다니는 실외 고양이들보다 주인에게 더 다정하고 고분고분하다고 한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밤에 밖에 나간 고양이들이 주인과 교류하기보다는 낮에 잠을 자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낮에는 주인과 놀면서 집에 있는 실내 고양이들은 밤에 잠을 잔다.

항상 고양이와 놀아주고, 언제 놀이를 시작하고 끝낼지 고양이가 결정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고양이를 입양할 때에는 외모가 아닌 성격을 확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shutterstock